

병 상 수 기

안 성 순

<경희의료원>

×월 ×일

날씨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하늘은 잔뜩 찌푸리고 있어 금방 뚝타도 내릴 것만 같았다. 병실문을 들어서서 그 순간 오늘은 다른날에 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왜냐하면 날씨에 환자의 기분은 변화가 많기 때문이다.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오늘도 어제와 같이 콧 짜여진 계획아래 내가 서야할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아침회진이 끝나고 수요일 아침이면 꼭 시행되고 있는 작업요법 시간이 한참 시작되고 있을무렵, 「벨」소리와 동시에 신환이 왔다. 자그마한 키에 작은 눈에 부담감마저 가지게 하는 젊은데 안경을 낀 K씨는 코를 찡긋거리며 몇번 병원안을 두리번 거리고 한바퀴 돌더니 “병실 분위기가 다른 병원보다 좋은 데?”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조금뒤 그림을 한창 그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더니 “이건 또

무슨 짓 하는거야 여기 미술 대회장인줄 아나? 빌어먹을” 서슴치않고 욕을하며 책상 위에 얹혀있는 물감을 던져본다.

나는 가시들린 선인장을 단지는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K씨? 기분이 괜찮으시다면. 한번 그려보시지요 누가 잘 그리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그림을 그림으로써 표현해 보는 것이랍니다.”라고 말하니 “야! 내가 이런것 하러 여기왔어? 생사랍 잡아놓고 무슨 말이 많어?”라고 말했다. 나는 이럴때 간호원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를 다시 생각해 보며 웃음으로서 따뜻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매달라 있는 K씨의 마음을 녹여야겠다고 생각했었다.

×월 ×일

인간이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요하는 시간의 큰 음성은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영향을 초래하는 것 같다.

L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낮에 유리창을 깨고 문짝을 흔들어 못쓰게 만들던 L씨는 밤이되어도 계속 흥분상태였었다.

적절한 처치는 했었지만 졸음이 눈에 가득해서 벼개와 담노를 간호원실 앞에 가지고 나와 누워서 한손에 「컵」을 들고 바닥에 뿌러가며 집에 가겠으니 문을 열어라고 하면서 떠돌았다.

한 사람의 흥분은 충분히 받아줄 수 있지만 다른 환자에게 수면 방해가 될까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득해 보며 마치 마구 물어대는 어린애를 다루듯이 달래보았다.

안타까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오랜시간 동안 흥분하다 지친 탓인지 구부리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하루종일 있었던 일은 없었던양 조용히 잠드는 L씨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니까 좀더 나 자신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L씨에게 내가 해야할 모든 정성을 다한다면 수줍은 웃음을 띄우고 건강한 모습으로 병실 문을 떠날때의 흐뭇한 마음을 빨리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가슴이 저절로 부풀었다.

